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SHA AND THE SPIRIT BIRD

가제 : 아샤와 영혼이 깃든 새

저자 : Jasbinder Bilan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9년 1월 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모험/9-12세



* 2019년 COSTA CHILDREN'S BOOK AWARD 수상작

*아마존 베스트 셀러 / 가디언지 '2019년 최고의 아동서' 선정

히말라야의 산 기슭에서 살고 있는 아샤는 뻑뻑한 집안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간 아빠를 매일 같이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소식이 뚝 끊겨버렸고 아샤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고 만다. 아샤는 어서 하루라도 빨리 아빠를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한다.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는 바람에 마음이 심란해진 아샤는 외양간 짚 무더기에 앉아 웅크리고 있었다. 아빠가 도시로 일을 하러 간지 8개월째, 하지만 4개월 전부터는 갑자기 소식도 끊기고 매달 보내주던 돈도 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마지막 편지에서 아빠는 분명 공장에서 잘 일하고 있으며 인도의 가장 큰 축제인 디발리 무렵, 아샤 생일 때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였다. 걱정도 잠시, 아샤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반이 아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지반은 아샤를 보더니 갑자기 아샤의 손을 잡고 재빨리 내리막길을 달려 아샤의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 집에는 아샤의 엄마와 낯선 여자 한 명 그리고 손에 금속 파이프를 들고 있는 몇몇 남자들이 있었다. 서양식 옷을 차려 입은 그 낯선 여자는 아샤의 엄마에게 어서 돈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고 아샤의 엄마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며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 낯선 여자 즉 '미나'라는 여자는 자기 사람들에게 눈짓을 보내더니 아샤네 집 안팎을 뒤지라고 명령했다. 파이프를 든 남자는 명령대로 파이프로 아샤네 집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고 아샤는 그 사람들에게 어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샤의 엄마는 멍한 채로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돈이 될 물건이 나오질 않자, 미나는 낡은 트랙터의 열쇠를 가지고 오더니 우선은 돌아가지만 디발리에 다시 돈을 받으러 오겠다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아샤는 이제 트랙터까지 없어졌으니 어떻게 농사일을 해야 할지

올라 더 큰 걱정에 사로잡혔다. 이제 그들이 다시 온다고 약속한 날인 디발리까지 이제 7주가 남은 상황. 아샤는 그 안에 반드시 돈을 구해야만 이 수모를 다시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샤는 한 동상 앞에 서서 자신이 믿는 신들을 향해 가족과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그 동상 귀퉁이에 꽂혀 있던 한 편지를 발견 했다. 그 편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아샤의 외삼촌이 보낸 편지였다. 아샤는 왜 평소와 달리 엄마가 이 편지를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는지 문득 의문이 들었다. 편지에서 삼촌은 아샤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말고 모두 영국에 오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샤는 엄마가 그간 생각해오던 계획이라는 게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를 버리고 농장을 판돈으로 이곳을 떠나 영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아샤는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올려다 보던 공중을 빙빙 돌며 날고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아샤는 그 새를 보자 불현듯 자신이 여섯 살 때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 난지를 떠올렸다. 난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동물의 몸 속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이들의 주변을 떠돌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난지 역시 언젠가 동물의 몸을 입고 아샤의 곁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약속 했었다.

그 독수리는 곧 오래된 우물가에 내려와 앉았는데 몸집이 양 크기만 했고 날개는 청동색에 부리는 회색, 머리와 몸은 황금색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마치 아샤에게 할말이라도 있다는 듯 신기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샤는 그 새의 눈을 바라보며 그 깊은 눈빛에 완전히 매료 되었다. 아샤는 그 새에게 다가가 그 새가 할머니의 영혼이 살고 있는 자신만의 ‘영혼의 새’였으면 좋겠다고 속삭였다. 지금 아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난지 할머니였기 때문이다. 한편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샤의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아샤의 엄마는 아샤에게 난지가 죽기 직전 집안 대대로 집안 여자들에게만 전해지던 귀중품과 금들을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는 말을 했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보물들만 찾을 수 있다면 빚을 갚기 위해 농지를 팔지 않아도 되고 아샤의 아빠도 더 이상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난지가 그 보물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을 노리고 있는 건 아샤의 욕심 많은 이모도 마찬가지였다. 이모는 어느 날 갑자기 아샤의 집에 들이닥쳐서는 할머니가 남긴 모든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 신비의 독수리가 아샤에게 찾아오더니 서둘러 히말라야를 떠나 도시로 가서 함께 아샤의 아빠를 찾아보자는 비밀스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반 역시 아샤와 함께 그 여정에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샤와 지반은 아빠를 찾고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될까? 신비의 독수리는 정말 할머니의 영혼인 것일까? 마술적 리얼리즘과 모험담이 가득한 성장 소설이다.

<저자 소개>

자스빈더 빌란 (Jasbinder Bilan)은 가족 대대로 물려받은 농가 있었던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데뷔작인 이 소설의 영감 또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소설로 2019년 ‘Costa Children’s Award’에서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FREDDY VS SCHOOL

가제 : 프레디 VS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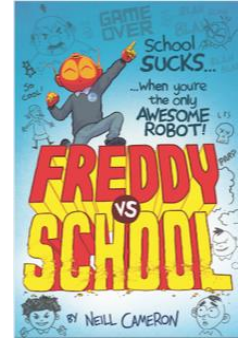
저자 : Neill Cameron

출판사: David Fickling Books

발행일: 2020년 7월 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모험/9-12세/그림 포함



* 로봇인데 학교를 다녀야 한다니! 21세기의 피노키오 같은 로봇 프레디의 이야기

* 워피키드, 톰 게이츠 팬들을 위한 이야기!

런던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큰 형 알렉스와 살고 있는 프레디에게는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프레디가 사람이 아닌 슈퍼 히어로 로봇이라는 것이다. 프레디는 보통 로봇들과는 달리, 자동차를 만들거나 세상을 구하기 위해 활약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 아이들처럼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디에게 학교에 가는 일은 그닥 신나는 일은 아니었다.

로봇으로 사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프레디는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해서 꽤나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는 사실 겉모습만 남들에게는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로봇이었을 뿐 다른 또래 소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이였다. 프레디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슈퍼 로봇답게 레이저를 쏘고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능력은 물론이고 어떤 무거운 물건이든 단번에 들 수 있었고 심지어는 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 프레디에게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이 뛰어난 능력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거의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프레디는 오직 엄마의 엄격한 감독하에서만 레이저를 쏘거나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게다가 집, 길거리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학교에서는 절대 자신의 능력을 써먹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 한 번 비행을 시도했다가 교직원 휴게실 창문을 다 부숴버린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인해 프레디의 엄마는 학교로 불려갔고 여러 차례 학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교장 선생님은 프레디의 엄마인 샤르마 박사에게 남들과는 다른 관심이 필요한 프레디도 물론 특별한 애정이 필요한 학생이긴 하지만 '다수의' 다른 아이들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고 샤르마 박사도 그 말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사건은 프레디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프레디는 아이들과 공 던지기 놀이를 하던 중 친구 페르난도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흥분한 나머지 로켓에 달린 부스터 장치를 무리하게 사용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직원 휴게실에 있던 프레디의 담임 선생님 오바시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은 꽤 심각한 사건으로 인지 되기 시작 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은 미연의 사건을 방지 하기 위해 프레디에게 새로운 행동 강령을 지시했다. 간단히 말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로봇이 가진 능력을 절대 쓰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레이저를 쓰는 능력이나 부스터를 활용하여 비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오직 프레

디 하나였기 때문에 프레디에게 이 방침은 너무나 차별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엄마는 이 규칙들은 결코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며 단호히 말했고 기꺼이 교장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장은 앞으로 프레디에게 남은 기회는 단 세 번뿐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날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 제대로 써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프레디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신나게 모험을 떠나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 상상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영영 쫓겨나게 될까 봐 두려워졌다.

다음 날 월요일, 학교에 간 프레디는 페르난도와 복도를 걷고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보며 유난히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아이들 틈 사이로 보이는 복도 벽 한가운데에 '로봇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적혀 있는 그 문제의 로봇 행동 강령에 대한 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프레디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씩 기분 좋았다. 자신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멋진 로봇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주어도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프레디는 마치 슈퍼 스타라도 된 것 같은 짜릿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프레디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곁에 있던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페르난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프레디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프레디는 왜 학교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죄다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사실 프레디는 로봇인 자기가 왜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녀야 하는 지 또한 이해 할 수가 없었다. 프레디는 내심 다른 로봇들처럼 위험한 해외 전쟁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구하거나 멋진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프레디는 형 알렉스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각력을 가진 로봇들이었기 때문에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로봇이었다. 프레디 엄마의 설명에 따르면 프레디와 알렉스는 정신과 마음을 가진 로봇이었고 이 때문에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말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프레디는 학교에 가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수학을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워야' 했다. 사실 프레디는 로봇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봇 안에 내재된 컴퓨터로 그 어떤 고 난이도의 공식도 풀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프레디는 모든 것을 다 인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해야 했다. 그러나 학교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좀 달랐다. 프레디는 그들에게 영원한 이방인, 로봇이었으니 말이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금씩 세상과의 벽을 느끼게 된 프레디는 과연 평범한 소년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프레디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연을 가진 소년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이다.

<저자 소개>

나일 카메론 (Neill Cameron)은 『How to Make Awesome Comics and Mega Robo Bros』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이며 『Tamsin and the Deep』의 작가이다.